

# 무역영어를 시작으로 관세사가 되기까지

박소영 / 무역영어 1급



## 관세사시험 합격의 첫 걸음, 무역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대학교 3학년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회계사/세무사를 꿈꾸거나 기업의 재무팀을 지원하고는 합니다. 저 또한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막연히 직업을 택할 뻔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관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설렘을 느꼈고,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관세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자격시험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2018년 제35회 관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기에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가 시험을 알게된 계기와 도움을 받았던 점들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무역영어 자격증을 알게 된 계기

관세사 1차 시험에서 “무역영어” 과목과 2차의 “무역실무” 과목은 저의 전공에서 공부해보지 못한 분야이다 보니 공부를 시작하는 데에 부담과 두려움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역의 기초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해볼 기회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중에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라는 자격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인 상태에서 무작정 관세사 1차시험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면 어려움을 느꼈겠지만, 무역영어 시험에서 Incoterms를 비롯한 무역의 기초를 다지고 꾸준히 무역서신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훨씬 기초가 탄탄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급부터 1급까지 합격의 기운은 저에게 자신감과 흥미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변에서 관세사 시험 준비를 도전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역영어 시험을 먼저 준비해보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세사 시험 도전, 그리고 합격까지!

저는 2년간의 수험기간 끝에 올해 관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시험이 저의 합격에 있어서 유독 의미가 있는 것은 2차시험 합격률이 6%, 4교시 무역실무 과목의 과락비율이 약 75%라는 점 때문입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출제로 답안지를 다 채우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관세사 수험생들이라면 흔히 소홀히 할 수 있는 항공운임률, 환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높은 점수 비중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분명 무역영어 3교시 실무과목에서 공부했기에 기억을 되살리며 최선을 다해 답안지를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무역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바로 관세사 시험공부로 도입할 것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저는 무역영어 공부를 고집했기에 누구보다 기초가 탄탄했고, 올해 예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